

2016년 <PT&Critic : 2013 Reun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원

2013년, 용산구 경리단길 반 지하에 윌링앤딜링이 오픈했다. 그간 신진작가에서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전시들이 쏟아졌다. 그 중 PT&Critic 프로그램은 윌링앤딜링이 신진작가를 인큐베이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야심차게 갤러리 공간 전체를 페인팅으로 채워버리고, 그것도 성이 안차 매일 페인팅으로 조금씩 더 채우겠다고 하던 구민정 작가. 매일의 기록, 특히 낙서를 생활노동밀착형 허무드로잉으로 풀어낸 김영민 작가. 공사판 현장의 거친 감성을, 연약하지만 강단 있는 페인팅과 부분설치로 풀어낸 노은주 작가. 학교 공간 곳곳의 애뜻함과 진지함이 묻어나는 로맨틱한 한성우 작가의 페인팅. 내가 윌링앤딜링 경리단길 시절 전시오프닝 및 패널로 참석하기도 해서 그런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가들이다. 이들이 2016년 병신년에 다시 뭉쳤다. 2016년 윌링앤딜링은 이제 외연을 확장과 함께 내연의 확장을 꾀해야 하는 시기에, 과거를 다지는 섬세함을 더했다.

2016년의 <PT&Critic : 2013 Reunion>은 구민정, 김영민, 노은주, 한성우 작가의 재회로 이루어졌다. 30대 초중반, 네 명의 작가들은 '작업'과 '생계형 노동 또는 아르바이트'라는 두 가지 노동을 반복한다. 극심한 시간싸움에 치열하게 매달리며, 혹은 시달린다. 그럼에도 고고하다. 이렇듯 그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동반한 삶의 방식은 동시대, 동사회가 제약하는 환경에 지배받는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발견하고, 이미지의 배반과 자본의 힘을 깨닫기도 한다. 때로는 허무하지만 기꺼이 인내하고 지향한다. 나는 그래서 그들의 태도, 시각언어, 형식의 차이보다 노동을 통해 드러나는 지향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근대적 노동개념의 가치절하, 장식성과 결합한 노동 가치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그들의 작업이 관객, 즉 수용자에게 사회를 인식하게 하고 선동하며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등의 허무한 의미화에 관심 없다. 잉여들의 노동과 휴식(labor and rest, 물론 휴식도 노동에 포함되지만)에는 생활의 고단함 허무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삶의 지향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다.

회화를 대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념, 시각언어와 이미지의 배반은 김영민 작가의 낙서작업 속에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글쓰기로 표현된다. 자본시장에서의 서바이벌이 고될수록, 또는 계급의 한계를 맞닥뜨릴수록, 작업은 고됨을 상쇄하려는 듯 허무감을 배출한다. 허무함과 감정적 지침, 사고와 행위의 휴지기는 습관적 끼적거림, 노골적 허무언어의 선택, 보이 드void 공간 속에서 드러난다. 반하여 한성우 작가와 구민정 작가가 추구하는 미적 감응은 아마도 '열정마약'과 같은 것이 아닐까싶다. 우연과 필연, 즉흥과 테크닉, 지지대 안과 밖, 조화와 부조화 사이에 펼쳐지는 욕망의 정치싸움판 같은 것이리라. 한성우는 그가 다니는 학교의 건물, 건물 옆 환풍기, 작업실과 목공실, 그리고 문을 그렸었다. 그가 주목하여 그린 특정 사물과 장소는 패턴화 되면서 그만의 개인적 정서가 담겨있었다. 시간이 개입되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또는 짝 찬 공간과 빈 공간, 계열화되어 호명된 사물과 호명되지 못한 사물들에 대한 작가의 애뜻함과 긴장이 캔버스 평면에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즉흥적인 제스춰gestural로 묻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은 바닥에 쏠린다. 구민정은 다양한 사물들의 이미지를 흡수한다. 이미지들 사이의 긴장, 캔버스와 벽, 오브제간 긴장은 회화적 다이내미즘 dynamism과 툭툭 튀는 긍정의 맛이 있다. 노은주 작가는 효과적으로 시선을 그리려 한다. 현재 그녀는 '조형언어에 대해 고민 중'이고, 그러다보니 이전 작업이 주는 오브제, 설치적인

측면을 제거하였다. 콘크리트 아파트의 이면에 존재하는 욕망의 전쟁터에 비판적인 작가는 직접적 표현들, 공사판을 연상시키는 형상들을 제거했다. 18세기 정물화가 평민을 대변하는 풍속화였던 것처럼 그녀의 공사판 비B품 정물화는 작가의 개입으로 도리어 연극적이다. 그리고 네 작가, 그리고 그들의 작품 하나하나마다 많은 감성과 의미가 존재한다.

전시공간을 둘러보니, 작품들은 마치 창처럼 하얀 벽을 통과하여 네 가지 시선의 사회적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에 의해 회화의 죽음, 종말, 위기 등으로 회화에 대한 많은 시도와 도전, 극복과 확장이 있어왔다.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미술 인프라가 생성, 소멸을 반복하며 흔들리기도 하였다. 스타일 대신 단기유행이 한국미술계를 휩쓸기도 했다. 여러 사건들에 의해 미술계 시스템의 부조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선배들의 잘못이지만, 이전에도 내가 지켜본 미술계는 항상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것, 계속하게 만드는 드라이브drive는, 회의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드러나건, 작가적 재능과 작가로서의 욕망이 투영되건, 막강한 자본과 계급사회에 무너지건, 창작능력과 작업임엔 틀림없다. 정진하여 네 작가의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